

F1경주장 이달 말 착공

정부, 간척지 우선 사용 승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선도시업으로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이 당초 계획대로 7월 안에 착공된다.

〈관련기사 3면〉

국무조정실은 24일 5개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F1 대회 경주장 부지인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에 대해 우선사용 협약제에 동의했다.

이로써 오는 2010년 첫 F1 대회를 앞두고 절대 공기에 따른 경주장 착공 시한인 7월 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농림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들은 'F1 대회 개최 필요성과 경주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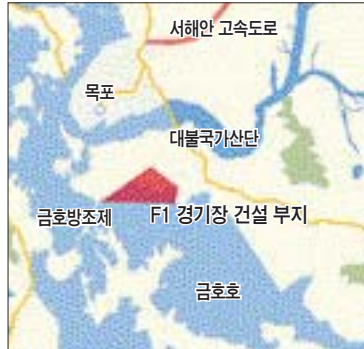
고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간척지 공식 양도·양수에 앞서 우선 사용승낙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전남도는 농림부와 조만간 F1경주장 부지인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1.85km(56만평)의 간척지 우선사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전남의 최대 현안인 F1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의의와 함께 경주장 착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무산으로 위기에 빠졌던 F1 대회 개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또 J프로젝트의 선도시업인 F1대회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 전반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실시승인 등



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 뒤 예정대로 7월말 착공해 경주장 진입로 공사 및 지반공사, 가설 건축물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9월 초 대규도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원활한 F1 경주장 건설과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경주장 건설 재원 마련 ▲F1 특별법의 조기 제정 ▲대회 추진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



한국인 23명이 납치됐던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州) 주민 1천여명이 24일 가즈니시에서 피랍 한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무고한 사람들, 특히 여성을 납치하는 행위는 이슬람 율법과 아프간 문화를 거스르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 관련기사 6면 /AP=연합뉴스

탈레반 “인질·포로 8명씩 맞교환”

“최수 석방엔 한국인 풀어줄 준비돼 있다...협상 지속할 것”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 무장세력은 24일 석방을 요구하는 탈레반 죄수 8명의 명단을 아프간 당국에 보냈으며 이와 맞교환할 한국인 인질 8명을 석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협상이 급진전 되고 있다는 주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태의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6면>

탈레반 사령관을 자처하는 압둘라 라는 인물은 AFP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간 정부가 무장세력 포로 8명을 풀어줄 경우 그 대신 한국인 8명을 풀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프간 정부에 석방

을 요구하는 탈레반 포로 8명의 명단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그들이 석방되면 다른 탈레반의 명단을 보낼 것이며 같은 수의 인질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정부 관리인 와히둘라 무자디는 “탈레반이 자신들이 석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수의 명단을 보내온 만큼 이번 문제가 조만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가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측이 보내온 명단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탈레반 무장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바디는 AFP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질 석방협상이 시한인 오후 7시(한국시각 11시 30분)를 넘김에 따라 협상이 “매우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협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통신은 “24일 중 피랍자 석방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 석방은 25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협상 급진전과 탈레반측의 석방 준비에 대해 “그런 낙관적 보도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상

황을 분석하며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정부 협상팀의 책임자인 아프가니스탄의 키알 무하마드 후세인 의원이 “교섭 중 탈레반이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아프간 측 협상단의 일원인 코와자 아흐마드 세데키는 “이날 연락을 취해 온 탈레반 측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인질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권하림·도쿄 뉴델리AFP=연합뉴스

범여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

우리·민주 통합과 19명 탈당...차시장·차지사 오늘 합류

범여권이 24일 '미래창조통합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발족시키고 대통합 신당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친노(親盧·친 노무현 대통령) 그룹을 포함한 열

린우리당 의원 15명과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의원 4명은 탈당과 함께 제3지대 대통합신당 창준위에 합류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민주당은 김효석 의원 등 대

합과 의원들의 탈당과 구 중도통합신당 모임 출신 의원들의 제3지대 대통합 합류로 사실상 분당됐다. 이와함께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25일 통합민주당을 탈당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후속 탈당과 함께, 지역 정치구도의 대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 시민사회진영의 미래창조연대, 통합민주당 탈당과 및 김한길 그룹(당적 보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선진평화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준위 발족식을 가졌다.

창준위는 26일 서울·인천, 27일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에 이어, 내달 5일 울림광공원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임동욱기자 tuim@

범무법인 광주로병이 당신과 함께 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들은 이번이 뜻을 같이하여 범무법인 **광주로병**을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가사·행정·세무·복합 등 송무, 기업자문, 재계법·재건축, M&A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고객 최우선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에 보답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범무법인 광주로병

대표변호사 **방명철** (법학박사·광주지법 목포지법 판사역임) 주사무소: 광주 서구 지동동 1208 골림아트빌 전화: 062-383-0689 팩스: 062-382-0689

대표변호사 **이승재** (법학박사·광주지법 판사역임) 주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556 전화: 061-536-0689 팩스: 061-536-5483

변호사 **이철원** (현 광주광역시 법원 판사) 법원출신사무소: 광주 동구 지산동 718-9 전화: 062-226-0688 팩스: 062-226-5483

변호사 **김재진** (광주지법 순천지법 판사역임) 주사무소: 2007.7.27.11:00 ~ 18:00 주사무소에서

변호사 **최국신** (연수원 32기)

변호사 **한광수** (연수원 36기)

기아차 임금협상 타결

기본급 5.2% 인상 잠정합의

기아차 노사는 기본급 7만5천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기본급 7만5천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노사 양측은 선진노사문화 정착,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사 합심 노력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10면>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9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우일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유망직업 전문교육기관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062-385-0723 ~ 0723-384-1984

세종특별자치시 12번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062-226-0688 ~ 062-226-5483

신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사원모집

1. 모집분야: 영업, 마케팅, 기획, 인사, 회계, 총무, 시설, 안전, 운전, 기타

2. 모집인원: 10명

3. 모집기간: 2007.7.27. ~ 8.10.

4. 모집대상: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5. 지원자격: 1. 학력: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2. 나이: 20~30세
3. 경력: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4. 기타: 기타 특기 사항 없음

6. 지원방법: 1. 지원서: A4용지 2매 작성
2. 사진: 2cm x 2cm 2매
3. 학력증명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4. 경력증명서: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5. 기타: 기타 특기 사항 없음

7. 접수처: (주)오리엔트조선 · (주)오리엔트중공업

11144호 (107) 062-226-0688